

제67차 정기총회 점검...준비 만전

제66차 총회 12회 임원회

교단 제66차 총회 12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4일 (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국가 위기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거짓을 일삼던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회담이 아니라 북핵이 폐기되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강화, 복음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차흥식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후 12:1-10 말씀을 본문으로 '약할 때 강함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처럼 나는 오히려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고 이는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절명 후 총무보고에서 총무 엄기설 목사는 교단 업무보고 및 교계 업무보고로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2018 타교단 가집사 연수교육, 제2회 정책위원회 모임,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등의 각종 업무사항들을 보고하고 교단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임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임 청원, 지방회 내 교역자전출임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국장·위원장 변경건으로 김용 목사가 교육위원장으로 정의섭 목사가 농어촌국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했다.

기타사항으로 5월 21일(월) 개최되는 제67차 정기총회 일정을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2018년도 총회주일을 5월 20일 시행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을 총회로 입금할 것을 당부하고 감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모임, 마지립교회 지원신청,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등의 내용을 총회원들에게 알릴 것을 결의했다.



‘버려야 할 근성(根性)과 가져야 할 근성(根性)’



조용목 목사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민 34:18,19)

근성은 뿌리 깊이 박힌 성질을 의미하며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성은 타고난 성질에서 비롯하지만 본받고 배우고 노력하므로 생장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격 가운데 부정적인 근성이 있으면 뿌리 뽑도록 하고, 좋은 근성이 있으면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바닷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무역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니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는 불만과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지손도 울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여 사는 무리를 “중대한 잡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충족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버리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잡종 근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병환하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나쁜 근성을 배격하고 좋은 근성을 배양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경계를 알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나스 족속에 속한 잡종 출신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놀랍고 특이한 일입니다. 갈렙은 잡종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이후에는 그의 사고방식과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갈렙의 근성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이나 장대한 적들로 인해 주눅 들지 않았고, 다수의 정탐꾼에게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항상 선두에 나서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맡아서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찾아서 누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비록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지만 그에게서 잡종의 근성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적 근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였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막중한을 망각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노에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갈렙이 보여준 신앙적 근성입니다. 여러분은 잡종의 근성은 철저히 뿌리 뽑고 신앙적 근성은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두려움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 되자

일본지방회 춘계수련회

일본지방회(회장 최남도 목사)는 지난 4월 2일 (월)부터 5일(목)까지 3박 4일동안 제주한마음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춘계수련회를 갖고 영·육간에 충전과 쉼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강사로 나선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행 7:1-8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은 스페인 집사처럼 성령충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둘째 날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출 32:1-6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설하였다.

셋째 날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는 막 16:15-20 말씀을 통해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전도와 선교방법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명하신 방법이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강력한 전도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원들은 낮 시간에 세미 은총의 동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을 돌아보며 그동안 선교지역에 대한 애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출정대회

시장경제 체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출정대회가 지난 4월 20일(금)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국가위기를 맞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시장경제와 국가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총력기발을 다졌습니다.

이날 청림 및 출정대회는 노재성 전 동아일보 기자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발기

인 공동대표의 인사말, 김석원 전 통일원 차관의 창립경과보고,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의 창립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노재성 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로

출발한 대한민국호가 망망 대해에서 항해하는 뜻을 빼앗고 북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대한 시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장경순 국가원로회 의장은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며 한 마음으로 국가인위를 위해 모여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 성도와 독거노인 위한 의료봉사

외국인선교회, 아주대병원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협력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외국인선교회는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및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4월 의료봉사를 지난 4월 15일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날 많은 외국인인과 다문화가족 및 병약한 어르신들이 선교센터내 진료실과 치과진료소를 찾아 의료 봉사자들로부터 정성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과 등 아주대학교병

원 봉사동아리 소속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비롯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의사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이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였다. 의료진은 건강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X-ray촬영 및 혈액검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용 의약품을 처방하여 무료로 제공하였다.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교회 회원들은 병원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환자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의료진들의 진료 편의를 도왔다. 다음 5월 의료봉사는 13일(둘레 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한국기독교연합 회원교단장 간담회 개최

한국교회의 연합 위해 더욱 힘 모으기로 다짐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4월 16일(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교단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하고 식사와 선물비 등 일체를 후원한 한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원회에서 한기연의 진로를 놓고 논의하는 중에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한국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기연이 바로 서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더욱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지는 뜻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 교단장들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훈 목사는 한기연 사임 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이날 간담회를 후원한 한영훈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기연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건 강한 연합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걸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교단들의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비롯해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2대 박익근 목사, 3대 한영훈 목사, 5대 조일래 목사 등 증경 대표회장과 박석대 총장 장종현 목사, 세기종 증경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변재운 국민일보 신임사장,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과 회원교단 총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전국 8교회 성도 639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4월 8일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생명나눔예배가 전국 8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양산에 위치한 삼양교회(담임목사 정연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정연철 담임목사는 “저도 오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했다”라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나눔에 동참하자”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삼

양교회 성도 중 총 212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또한 포항오전교회(담임목사 박성근)도 생명나눔예배를 진행하였다. 박성근 담임목사는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기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포항오전교회 성도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총 16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충북 괴산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 홍일기)도 장립 43주년을 기념하여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홍일기 담임목사는 “43주년이 된 우리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설교했다. 그 결과 괴산중앙감리교회 성도 64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어 서울, 동두천, 광주, 군산 지역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욱사교회(담임목사 이현식), 서울 중로구에 위치한 순인교회(담임목사 김요한),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대동교회(담임목사 성일한), 광주 북구에 위치한 아베스교회(담임목사 이상철), 전북 군산에 위치한 서문교회(담임목사 장지산)에서도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9개의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져 총 639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계룡시 의회도 인권조례 폐지, 적극 환영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회는 2018년 4월 30일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충청남도 도의회가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이후, 충북 증평군이 4월 20일에 인권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이어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은, 인권조례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으며,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동반연에서는 이러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5월 11일 서울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및 613지방선거 동성에 반대 실천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결 예정이다.

한편재단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

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16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중 87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인권조례에 포함된 왜곡된 인권으로서의 동성애(성적지향)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알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서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확산 경로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입을 틀어막아 왜곡된

정보를 공식하도록 하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의 폐해를 주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여 시정을 권고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법조차 바꾸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 하였다. 최근에 외서는 미투를 핑계하여 혐오표현방지, 대학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에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성결대 SKU창의문화공작소 개소식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가)가 지난 4월 12일(목) 오후 SKU창의문화공작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SKU창의문화공작소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문·문예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회연계 프로젝트이

다. 또한 21세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실현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전시감상, SKU창의문화공작

소 활동보고 및 공작소 단원들의 발표로 진행이 되었으며, 한두뇌공작소 김영수 대표, UCR 한성필 대표, ㈜아랍비티미디어 강진구 상무이사, 전전기 배우, 교수, 학생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했다.

성결대 윤동철 총장은 “SKU창의문화공작소 개소를 축하하며, 창의적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창의적 인재들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공작소는 24일 오후 6시 성결대학교 기념관 1층 ‘오디세이아 2’ 연극홀에서 개관기념 시민문화강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 행사를 진행했으며 5월에는 안양에 총과 공동 기획하여 미디어아트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5·6월 국학진흥회 스토리테마파크 공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글로트렉트레이드, 구세군 희망나눔미에 물품 기증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최근 ㈜글로트렉트레이드(대표 이재이미)가 약 2천 6백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자사 유통 미용 상품을 구세군 희망나눔미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구세군 희망나눔미는 2007년부터 재활용품 매장을 운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알코올 재활센터의 재활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트렉트레이드는 무역 유통회사로 국내외 트럭스토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돌리링크, 코지, 락시온 등의 일본 및 해외 메이크업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들은 구세군 희망나눔미의 12개 재활용품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저소



득층 청소년 장학금과 알코올 재활센터 복지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희망나눔미 광역덕 대표는 “소외계층과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며 나눔을 실천해주는 기업에 감사드리며,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N+교회사역연구소, 무료세미나 개최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부흥 원동력 제시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목회자료를 지원하는 ‘N+교회사역연구소’(소장 김인하 목사)가 전도자들을 무료 초청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될 ‘무료초청 전도기도 중심 세미나’는 지난 4월 10일(화) 인천하나비전교회(김종복 목사)를 시작으로

12일(목) 전주태평성결교회(김재곤 목사), 17일(화) 광주중앙성결교회(정기준 목사)에 이어 19일(목) 태백장성중앙교회(이종민 목사), 24일(화) 오류동성결교회(조종환 목사), 26일(목) 남양주목원교회(장창만 목사), 29일(주) 파주금촌성서교회(김정규 목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모든 교회가 전도를 통해 부흥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작은교회와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제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N+교회사역연구소 소장 김인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3인의 전도자와 기도자를 찾고 그들을 통해 각 교회마다 믿는 이가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하 목사는 “3달 안에 몇 이상전도하는 319번전도도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를 제시한다.

2009년 창립된 N+교회사역연구소는 ‘교회 4대 중점사업’인 전도기도 양육 소그룹을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사역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예장정통총회, 8개노회 정기노회

각 노회의 노회장 유임 및 사업계획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서울노회노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한 8개 노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정기노회를 가졌다.

중부노회장 임정대 목사의 사회로 경기노회장 박행원 목사의 기도, 임정대 목사의 고전 4:1-2절 성경봉독, 서울노회 노회장 양정섭 목사가 ‘청지기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월례회장 한세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양정섭 목사는 설교에서 “청지기는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속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청지기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충성해야 한다.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맡은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정섭 목사는 또 “이 혼탁한 시대에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순교신앙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

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증거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사무보고 및 재정보고 후 김성철, 김용주, 고두미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으며, 각 노회의 노회장은 그대로 유임됐다.

예장정통총회 정기노회에서 유임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노회 양정섭 목사 △중앙노회장 이영춘 목사 △중부노회장 임정대 목사 △서부노회장 이순례 목사 △경기노회장 박행원 목사 △안전노회장 한성욱 목사 △미국 워싱턴노회는 김경희 목사 △LA노회에 신현주 목사 △하와이노회에 이영희 목사



민자가 세운 종합대학교로는 최초로 미연방정부 교육부와 대학인가기관인 ABHE 및 ATS의 인준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17일자로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 및 대학생 인턴에 대한 Exchange

visitor Program 인 J-1 Visa Sponsor(허가번호 No p-1-21241) 인준을 받았다. 한국의 대학생 해외 인턴ships 많이 보내려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되고 미국국회, 주정부 의회, 주정부, 각 시청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비즈니스에서 전공에 맞는 인턴ships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본교에는 한국에서 오신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J-1 Visa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대학교는 지난 2017년 가을학기부터 항공학과에는 국제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미국 본교에 유학 와서 2018년 현재 항공기 조종 훈련에 영종하고 있다.

‘32주년 기념 Midwest 가족의 밤’

종합대학교로는 최초로 미연방정부 인준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Dr. James Song)는 학교설립 32주년(1986-2018)을 맞이하여 ‘32주년 기념 Midwest 가족의 밤’ 행사를 동문,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6일(목) 오후 4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제임스 송 총장이 내빈하여 재학생, 동문, 교수들에게 격려하고 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미국 Missouri주 St. Louis 서버브의 가장 발전하는 웬즈빌(Wentzville)에 위치한 대학교로서 세계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임스 송 박사에 의해 1988년에 설립 되었으며 동양이

장영기 목사, 예하성 총회 필리핀 선교사 파송예배

광주지방회

장영기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및 향존직 임직식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2일(주일) 오후 4시 팔로우교회(담임 장일 목사, 구 순복음행함교회)에서 열렸다.

22년 동안 순복음행함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해온 장영기 목사는 예하성 총회 선교사로 팔로우교회 파송을 받아 필리핀 북부 바키오 일원에서 필리핀 지역 주재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다.

1부 선교사 파송예배는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 사회로 조은주 목사(총무, 순복음침침은교회)의 대표기도, 예하성 총회장 김양인 목사(목양제일교회)의 '교회의 선교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파송장 수여, 주덕영 목사(증경회장, 나주순복음교회)의 권면, 이영애 목사(부회장, 순복음한국교회), 서정복 목사(예하성 선교국장, 순복음남원교회), 전계두 목사(순복음햇빛교회)의 축사, 조원재 목사(증경회장, 순복음풍암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되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종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2부 향존직 임직식은 장일 목사(팔로우교회) 집례로 안수기도, 약속례, 임직패 증정, 이재현 목사(광주총광교회)의 권면, 진일교 목사(광주제일침례교회)의 축사, 장영기 목사(증경회장, 팔로우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종수 씨가 안수집사로, 이애숙, 장추임 씨가 권사로 임직 받았다.



바울과 같은 소명의식을 갖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4월 17일(토)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화림정1길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담



임 김진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권점식 목사의 대표기도, 신홍섭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이성석 목사의 딛전 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무엇이 필요하니까?'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이성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교단과 지방회의 보고사항들을 전달하였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한우리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인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찬양교회 홈페이지(www.gnc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완주벤엘교회 가입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4월 23일(월) 오전 11시, 완주벤엘교회(담임 송준호 목사)에서 교회가입예배 및 담임목사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의 기도, 서기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종은나무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20:17-24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삶으로 살아야 함"을 당부하였고, 회장 유관영 목사는 담임목사취임증서를

송준호 목사(완주벤엘교회)에게 전달하였으며, 예배 후에는 완주벤엘교회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시온순복음교회 창립예배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4월 23일(월) 오전 11시 상주시 소재 시온

순복음교회(담임 성여호수아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이

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큰소망교회)의 말씀을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33:24-29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셋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전하며 "시온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회장 김영준 목사의 교회 창립 공표, 이상극 목사(주영광순복음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회계 허만운 목사(성산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와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창립예배를 모두 마쳤다.



임원회의 갖고 충성된 제자 다짐

교단 부흥사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4월 26일(목) 대전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부흥사회 해외 연합집회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는 고전 4:2 말씀을 통해 "부흥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치고 은혜와찬양교회의 섬김으로 인근 이탈리아인 푸젠레스토

람에서 애잔과 함께 각자 목양지의 소식들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제67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임응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부총회장 후보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총무 후보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서기 후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재무 후보



이은승 목사
은혜와승리교회

회계 후보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2018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목양의새

최형택 목사 // 교단 직전총무,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

계 17:7-14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고 갈 백성들을 깨우며, 어린양의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스케줄이다. 이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

신랑이로다!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이다. 사도 요한은 계 13:2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부럽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짐승은 짐승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끝내는 우리가 이긴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도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므로 짐승의 비밀이 풀려야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대안을 가질 수 있다.

계 13:1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 13:4 “용에게 경배하며...”으로 볼 때,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베교를 일삼고 많은 주의 종과 교회들을 심판의 대열에 서게 하는 짐승, 사탄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이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조 중에 가장 큰 정조이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한다.

첫째로,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비방하며 진리를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계 13:6). 둘째로, 짐승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금신상의 열 팔각각, 열 뿔, 일곱머리, 바로 EU에서 나오는 인물이며, 계시록뿐만 아니라 율법과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깨달아야 한다(계 13:1). 셋째로,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 곰, 사자 같은 맹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계 13:2). 넷째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승리하는 자는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깨달아야 한다(계 13:8, 계 17:14) 다섯째로, 짐승 적그리스도는 미혼 두 달 세상을 지배하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계 13:6).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가톨릭을 이끄는 교황이다. 종교 개혁가들 모두 한목소리로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다니엘서 7~8장, 11장, 요한계시록 12~13장, 17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1962년) 종교 다원주의 창지자인 교황 요한 23세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 교황들의 배교적 행보와 발언을 다 말하

지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을 24장 15절에 말씀하신 “천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기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기증한 것이 바로 이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이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곧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이다.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너무 할 말이 많다. 이 짐승의 정체는 주의 종과 교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마 24:5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고 했다. 창세 이후 이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 박해, 살해한 역사로 분명하게 드러난 교황권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이와 같다.

1. 일곱 머리로 되어있다.

계 17:7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EU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들이다. 분지 하나에 여러 가지 사탕이 들어있는 종합선물 세트의 모습이다. 역사상 최고로 악랄한 짐승의 모습이다.

2. 열 뿔을 가졌다.

계 17:7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열 뿔은 열 왕이다. EU로 구성된 열 개가 나라가 아니고, 10이 만수무강에 유럽 전체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교황이 유럽의 통치자가 될 것을 의미한다. EU 첫모임이 교황청에서 시작됐고 EU국가들의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이다. 화폐도 유로화로 되어있고 국가들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로 묶여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며 종교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단으로 묶는 모습이다. 열 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맡긴다. 계 17: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EU 모든 나라들이,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맹

주로 삼을 것이다. 이제 곧 EU 권세자가 전면에 부상하여 자기를 신격화하는 날이 곧 도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본격화 될 것이다.

3. 어린양과 싸워 패한다.

계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니”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구원하시려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배반하며 결국 죽였던 것처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은 예수님과 맞서며 대적하려는 교단의 극치를 이룬다. 그러나 짐승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하고 잔인해도 우리는 결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철장, 곧 쇠 지팡이 앞에 질그릇이 깨지듯 철저히 파멸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들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일곱 머리, 괴물 같은 짐승과 맞서서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앙으로 철통같이 무장해야 한다. 짐승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배반을 일삼고 말씀을 버릴 때 강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혀 왔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신앙으로 철통같이 무장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레 26:6에 “...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앞드려 질 것이니...”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도록 <레 26:1~3절> 말씀에 맞는 신앙을 회복 시켜야 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짐승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고 갈 백성들을 깨우며, 어린양의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스케줄이다. 이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 신랑이로다!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목양시론

소위 이단 교회 안에서의 미투운동, 정통교회와는 구분해야

최근 우리 사회가 ‘미투(Me Too-나도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운동’으로 사회적 파장과 우리 사회 부끄러운 단면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방송 및 신문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벌어진 음울(陰鬱)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jbc 방송에서는 서울의 성락교회(감독 김기동)에 대하여 “성락교회 신도를 ‘성폭력 보고서’엔 10명 중 6명 피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 내용은 지난 해 11월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법무팀이 그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 중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비율이 5.9%로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그 중에는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질문에, 감독에게 당했다는 사람도 1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미 이단(異端)으로 규정되었다. 1987년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199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에서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으로부터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방송보도를 보면 그 교회가 정통교회와 구별되지 않도록 보도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보도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정통교회와 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성교회가 피해를 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 최근 4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같은 jbc 방송에서는 만민교회(담임 이재택)에 대한 성폭행 관련 다수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만민교회에 대한 이단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다.

첫날 보도(10일)에서는 제목이 ‘대형교회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재택 목사 출국금지’라고 하여 마치 정통교회의 대형교회 목사가 음란한 짓을 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고 있다.

또 둘째 날 보도에서는 ‘원래 성경교단 소속의 교회였는데 1990년 교단이 제명하자 이 씨는 따로 교단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얼버무린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앞에서는 “이재택 목사 성폭행 의혹..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 1999년 MBC 난입 재조명”이란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뒤에서는 “1990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제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이재택의 이단 규정을 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재택의 음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등록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라고 보도하여 정통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아주 나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보도 내용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 정통 기독교와 지도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도하는 신중하지 못한 언론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의 시청조치와 함께 차후에는 이런 왜곡과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재택은 이미 1990년 당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199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2000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으로부터도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종교 지도자이든 사회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 범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항상 이런 것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고 있다.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음울한 행위를 마치 정통 교회 지도자들이 음행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도록 잘못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를 개탄한다.

언론에 의한 이와 같은 보도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미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한기독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5월 3일, ‘한국기독교의 현주소 성찰’ 주제로

대한기독병원협회(회장 이원준, 명지병원 이사장)는 제42차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지난 5월 3일(목) 원주 세브란스기독교병원에서 ‘2018 한국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연세대의 세브란스병원과 명지병원, 샘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주 예수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등 전국 20여개 회원 병원 대표와 기독교인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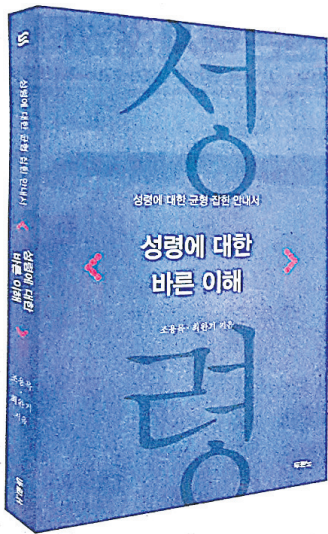
조동형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 원목실장의 설교로

진행된 개회예배에 이은 특강에서는 최병한 지구촌 방글라데시 구호병원 의료선교사가 ‘방글라데시 로항야난민촌 의료선교’에 대해 보고했다.

박재홍 CBS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이정배 박사(연加里교신학대학 교수)와 지용근 대표(지앤컴리서치)가 발제하고, 변창대 목사(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와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육순종 목사(세전아시아미션 이사장) 등이 ‘한국기독교의 미래와 기독교병원의 역할’에 대해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교사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은혜' (벧후 3:18)

- 대 상 : 교단 산하 교회 교회학교 교육담당자 및 교사
- 교 재 : (1)책자 2,000원 (2)찬양CD 2,000원 (3)찬양울동DVD 5,000원
- 특 징 : (1)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2)새로운 찬양울동 보급 및 성경퀴즈대회
(3)중·고등부 선택특강
- 일 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031-443-3731)
- 계 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연 락 처 : 전화 02-2675-5181, 팩스 02-2677-5181
이메일 aogk@aogk.org

*참가비는 없으나 교재를 구입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석을 미리 알려주시면 교회별로 자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出産, 고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저직분들을 전국지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영업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 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인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세계선교협의회 제11회 정기총회 개최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감당 다짐... 회장에 한규섭 목사 선임



세계선교협의회(World Mission of Korea, 이하 세션협, WMK) 제11회 정기총회 가 지난 4월 27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지 70 소재 연합교회(전순임 목사)에서 열려 회장에 한규섭 목사를 선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전종호 전도사(연합교회)의 인도로 천근화 장로(영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오광근 목사(새빛교회)가 마 11:29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배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다. 오늘 주님의 종들이 추구해야 할 길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미영 목사(한빛천양교회)의 봉헌기도, 김영원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협의회를 위해서,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광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증경회장 오광근 목사의 사회로 서기진인숙 목사가 회원점명에서 17명 참석 보고, 회장 선거에서 총회준비위원회(수습위원회)에서 추천한 한규섭 목사(삼동제일교회)에게 약력소개 및 세계선교협의회를 운영방안을 듣고, 박수로 박자는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추대, 증경회장 오광근 목사가 신임 회장에 한규섭 목사가 선임된 것을 선포했다.

세션협, WMK 제1대 회장 장순자 목사, 제2대 회장 오광근 목사, 제3대 회장 김해 목사, 제4대 회장 한규섭 목사는 인사 후에 신 안건토의 ▲정관수정의 건에서 "제14조(회장 및 임원선출) 3항,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원을 선출한다. 단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통과했다. ▲몽남학원 이사회 탈퇴의 건은 이사 전원이 탈퇴할 것을 결의했으며 ▲아나폴로 초등학교 담장공사 건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부회장, 회의록서기, 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월례회에서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를 폐회하면서 모든 사안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신임회장 한규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선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충성으로 하고, 축복은 하나님께 받자"며 "큰 짐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고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규섭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 △서기진인숙 목사 △회계 송민자 목사 △임양철장 김경수 목사 △선교회 회계 전종호 전도사

연락처 : 032)651-9027, 010-2538-9026.

제24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6월 25일~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섬, 회복,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 주제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주최, CTS기독교TV, CBS, febc국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되는 제24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6월 25일(월) ~ 29일(금) 필리핀 세부 플랜테이션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서울 예정교회가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새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이어서 제24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해외수양회로 필리핀 세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24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라는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섬과 회복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일정은, 참석하는 사모들은 6월 25일(월) 오후 3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저녁 8시 25분 인천을 출발하여 6월 26일(화) 00:05분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이동한다.

이후 6월 28일(목)부터 6월 28일(목)까지 리조트 휴식과 관광 그리고 세미나 진행 등 일정이 진행되고 6월 28일(목) 늦은 저녁 세부 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6월 29일(금) 새벽에 인천으로 귀국하는 여정이다. 매일 저녁 시간마다 설동욱 목사가 인도하는 은혜로운 말씀집회와 기도시간도 갖는다.

등록문의 (032)420-1234 (행사담당) 하니투어 이겨슨).



노숙형제에게 사랑과 섬김사역 실시

생명나무순교교회

서울역 노숙형제를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사회 공동체를 섬기며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 공공성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생명나무순교교회(장현일 목사)는 (사)해동는 마을과 함께 4월 20일 서울역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 노숙형제 500여 명에게 사랑과 섬김사역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 나눔 활동은 생명나무순교교회 청년대학선교회가 주관하여 진행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숙형제들에게 청년대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정성껏 대접했다.

이날 점심 식사 전에 '저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생명나무순교교회 청년대학선교회 봉사란 예배'는 구상임 권사(해동는 마을)의 사회로 유종성 회장의 대표기도, 조서연 총무의 성경봉독 순서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순서를 맡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이날 장현일 목사는 요 6:16-21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풍랑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풍랑속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불안한 인생을 경험 할 때 늘 우리 뒤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 있게 다시 일어서자"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금년 10월 청림 2주년을 맞는 생명나무순교교회는 특별히 기독교청년대학생들을 청년비전 두날개 프로젝트

트인 말씀으로 세워 나가며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자원봉사를 비롯한 한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생명나무순교교회는 청림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역 노숙인을 포함한 다문화, 한부모 북한동포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오고 있다.

고등학교에 하나님의교회 위장 동아리 등장

하나님의교회 연령층 눈에 띄게 낮아져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하나님의교회 위장 동아리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동아리 담당 교사 몰래 1, 2학년 학생들을 모아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진 일이 발생했고, 그 시간에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3학년 회장은 전국과 지옥, 재앙, 유월절 등에 대해 준비한 ppt를 보여주었다. 전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성경구절을 통해 상기시킨 후, 지진, 쓰나미 등 재앙에 대해 설명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누가 참신인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보여주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동아리 담당 교사는 성경공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

았다. 하지만 약속을 한 이후에도 책자를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접촉했다. 학교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결국 동아리가 해체되었다.

하나님의교회 홈페이지 소식을 보면, "2018 예비 청년 모임", "2018 예비 청년 캠프", "2018 동계 학생캠프 등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 하나님의교회를 다니며 일인사위 하는 한 집사는 "예전에는 깔끔하게 옷 입은 30-40대 여성들이 눈에 띄었으나,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며 "10대들이 저주하는 듯한, 살기가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전했다.

하나님의교회가 30-40대 여성 신도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단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젊은 하나님의교회 회원들 꾸준히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2세 교리교육과 포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기성교회 중 · 고 · 청년들의 대비가 시급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현대종교' 5월 호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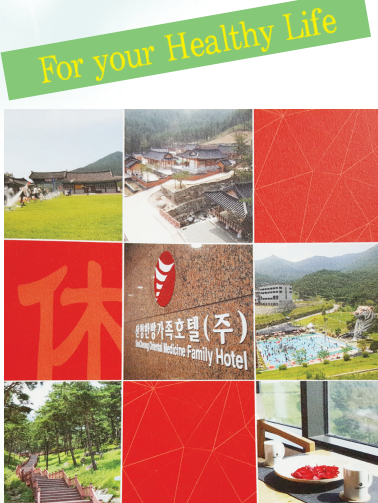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알려드립니다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박용호 목사입니다. 지난해 목회자세미나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자연의 품은 청암 좋은 환경의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매료되어 사외이사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 행사와 세미나, 회의, 발표회 등 귀한 행사에 좋은 환경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코자 합니다.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 사외이사 박용호 목사 010-4873-0448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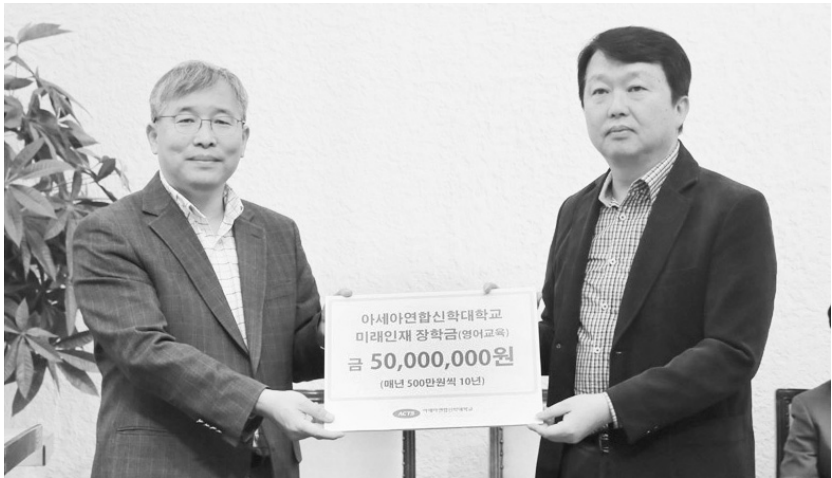
ACTS 선교영어학과에 장학금 기탁 약정

한 무명의 성도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에 장학금 총 금액 5000만원을 기탁하기를 희망하여 2018년 4월 19일 오전 채플 시간에 장학금 기탁 약정서 교환을 하였다. 이 성도는 2018년 올해부터 매년 500만원씩 앞으로 10년 동안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 성도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 혹은 기독교 대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게 되었다.

선교영어학과는 기탁자의 뜻을 존중해서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매년 2학기 말에 2학년 중에서 1명을 선발하여 3학년 두

학기 4학년 두 학기 총 4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12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 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졸업할 때까지 4학기 동안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선교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영어학과 졸업생들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몽골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모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도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영어교육학(TESOL)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이들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는 이도 있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가족세트전도로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는 가족세트전도법의 장안자로써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탁월한 전도자이다. 박 목사는 매 주 수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동 훈련원에서 가족세트전도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집체된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

“전도의 성공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행 1:8).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1:12) 신속 정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교회성장의 지름길은 오직 전도뿐이며, 전도만이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전도방법은 전도용품을 주는 재래식 전도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능력의 전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13주년을 맞은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의 말이다.

박 목사는 또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이끌어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며,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 불신앙의 세력을 물리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고 강조한다.

박 목사의 전도는 3분 안에 결정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속전속결의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일률동방 전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신앙카드를 작성케 한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한다고 한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방법을 배웠는데 가족세트전도방법처럼 전도가 쉽게 느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확한 전도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가족세트전도방법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제적인 전도방법을 경험하면서 열정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의정부 용현동교회 김덕례 사모의 말이다.

울산희망교회 이민자 사모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날 확실한 전도방법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주신 전도의 선물인 가족세트전도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박영수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 10만 명(목회자 1만 명)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지신민의 가족세트 전도법

을 미지립교회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 주 수요일 가족세트 전도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훈련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무료로 훈련을 시켜 1만3천여 명의 수료자들을 배출시켰다. 목회자와 사모들이 훈련을 받고 현장에 적용, 교회가 부흥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론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목회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훈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누구나 능력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가장 쉽고 빠르게 능력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상당한 신도가 쌓이고 있다.

가족전도세트아카데미의 특징은 짧은 시간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는 신속한 ‘관계전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전도’,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희망전도’, 전도현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전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세트 전도아카데미는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직접 강사가 현장실습을 활용하여 전도가 되어져 가는 현장을 보며 성령능력 전도지를 세우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개인전도 아카데미 훈련원으로 이수 3개월이면 수백세대를 등록시킬 수 있고 그중 25%를 교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겉을 내거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전도는 세트전도시스템대로 따라하면 100%성공합니다. 세트전도아카데미는 서울, 부산, 제주도를 비롯한 울릉도 등 전국적으로 60개 지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치고 적극적이라고 하라고 강조하는 박영수 학장은 전도컨퍼런스와 성령치유 집회를 통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오늘도 복음전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있다.

한편, 박영수 목사는 최근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13주년을 맞아 그간의 전도현장체험을 담은 「153실제전도 현장 간증집」을 발간했다. 이 간증집에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도해야 할 동기가 확실한 전도에 관한 각종 노하우가 담겨있다.

동영상 :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8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초점

장로회신학대학교 이래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23일(월)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 일부 동문들이 성명서를 냈다. 그 내용은 진복성 발언을 한 인사를 초청하여 학내 시경회를 한 것,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의 활동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해 장신대가 소속된 연합 통합 교단에서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신하 7개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총회 신하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는 교회의 직원(홍조지, 임사직, 유급종사자)이 될 수 없음을, 헌법시행규칙 제26조에 넣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장신대 총학생회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는 곧바로 총회의 결의에 도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동아리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려 하였으며, 올 4월에는 ‘성서와 소수자’라는 주제로 강사를 불러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장신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5월, 장신대의 대표적인 신학 학술지인 ‘신학춘추’에서는 동성애 옹호를 노골적으로 주장한 ‘퀴어신학’을 특집으로 게재하여 한국교회에서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 해 3월 시경회에서는 진복성 발언을 한 인사가 집회를 해 교계에서 큰 논란을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오는 5월 10일 학내에서 개최하는 ‘인권의 가면 뒤에 숨은 동성애’라는 포럼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이 주장하기를 “..폭력적인 이념이 반동성애 및 반이슬람 운동과 결합했다. 이념을 떠나서 타인에 대해 합부로 규정짓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폭력”이라고 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신대는 1907년 첫 졸업생을 낸 평양신학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1961년 당시 분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교단

의 신학교이다. 장신대학교는 지금까지 기독교계 지도자 32,212명(2017년 8월 기준 학사 5,517명, 석사 25,878명, 박사 817명)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편파적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과 반성경적인 주제의 학생들 활동에 대하여 학교 측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해 장신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침서를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장신대가 분명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한국교회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신대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도전 앞에서 학교 당국과 총회와 동문들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속된 교단의 역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신대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지 동산’이 되고, 개혁신학과 장로교 전통을 지켜 한국교회 믿음의 건강성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봄날의 양화진을 새로운 ‘출사(出寫) 여행지’로 삼길”

제21회 양화진음악회, ‘옥수사진관’ 콘서트로

한국기독교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주최, 마포구 후원 제21회 양화진음악회가 지난 4월 27일(금) 오후 8시 합정동 소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양화진음악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대중음악 연주자들과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번갈아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이번 제21회 음악회는 전국을 누비며 노래로 꿈을 켜는 3인조 밴드 ‘옥수사진관’의 콘서트로 준비된다.

‘옥수사진관’은 꾸밈없는 서정성과 담백한 노랫

말로 세련된 감성을 이야기하는 3인조 밴드로 영화 음악 감독 겸 편곡가 김대홍, 건반을 담당하는 김장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노경보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정규 1집 ‘옥수사진관’을 시작으로 2집 ‘Candid’에 이어 3집 ‘Dreamography’를 발표했으며, 2017년부터는 ‘출사(出寫)’라는 타이틀로 전주, 판교, 춘천, 광주, 부산 등을 다니며 전국투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빅데이터의 영애씨’, ‘최강배달부’ 등의 OST앨범에도



참여해 특유의 감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봄날의 양화진을 새로운 ‘출사(出寫) 여행지’로 삼아 감성 가득한 노래와 연주를 들려주게 될 ‘옥수사진관’에 잠시 머물러, 기억 저 편에 소중한 간직했던 영혼의 꿈들과 조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건강한 자연을 **빛**으로 조리한다!

■ 힐링요의 제품 구성

■ 알칼리 주전자 (1.2ℓ / 1.8ℓ)
구성 : 본체, 뚜껑
재질 : 내열도자기 (본체) / 강화자기 (뚜껑)
1.2ℓ 규격 : 12.5 * H16 (cm) 뚜껑포함
1.8ℓ 규격 : 15 * H18 (cm) 뚜껑포함

■ 힐링요 기술의 과학적 규명

- 식재료별 힐링요를 이용한 조리 및 분석실험결과 (짜다순, 서울대, 2013.12)
- 건강조리 도자기 '힐링요'를 이용한 조리메뉴얼의 과학적인 규명 (한양대학교, 2013.10)
- 힐링요 알칼리수를 이용한 여드름치료 실험사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07)

▲ 힐링요 배짬질기 세트

▲ 힐링요 화음부짬질기

▲ 힐링요 경추짬질기

▲ 힐링요 알칼리 머그

▲ 힐링요 생선구이

▲ 힐링요 건강조리

■ 힐링요의 신뢰성

힐링요 특허/성적서

한국세라믹기술원 유해물질 불검 시험성적서 원적약선 발열도자기 특허증 한국세라믹기술원 열충격시험 시험성적서 한국원적의선용 평가연구원 시험성적서

■ 언론과 소비자가 인정한 힐링요

● 그 외 MBC 생방송 좋은 아침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소개

문의 엄기설 목사(010-3002-0922)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로마가톨릭과 한국NCCK 직제 통합이 부당한 이유(3)

23) 가톨릭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병자성사, 또는 마지막 의식(Last Rites)을 행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예식(Vaticum)을 반드시 행할 것을 강조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516, #1517, #1523-1524, 트렌트 공의회 DS 1697; 1719; 교회법 제 1003조; 동방교회 법제 739조 1항).

이 예식은 전혀 성경에 없는 사악한 인간이 만들어 낸 전통에 불과한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도와의 일치를 강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죽기 전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말씀한 곳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런 예식 없이 심령의 마지막 죽을 준비를 말하고 있다(딤후 4:6-7).

24) 가톨릭교회는 죽은 영혼에 대한 제 2의 기회 설을 주장한다. 1944년 그들의 교리 문답서에 “사도들에게서 이어 받은 권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안배에 따라 모든 성인들의 영혼과, 다른 모든 죽은 신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죽을 때 더 이상 정화할 것이 없었거나, 나아가 정화해야 할 것이 과거에 있었거나, 정화할 것을 지니지 죽었어도 죽은 후에 온전히 정화된 영혼들도 그들의 육체 안에서 부활하기 전에 그리고 공심판 전에, 그리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하늘나라, 하늘의 낙원에서 거룩한 천사의 모임에 받아들여졌으며,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받아들여질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을 이후로 이 영혼들은 어떠한 피조물도 거치지 않고 직복 직관(intuitive vision)의 신적 본질을 얼굴을 맞대고 보았고, 보고 있다(베네딕도 12세 1002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1023)”라고 허황된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다.

성경은 영생의 구원에 대해 단순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 일단 이 세상을 떠난 생명은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에 지나면 이교도이다(눅 16:26, 요3:16, 36, 5:24, 히9:27).

2.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밑에 굴복해야 한다(시 107:10-11, 119:17, 42-42, 딤후 3:16, 마 13:22-23, 눅 4:5, 행 3:22).

1) 가톨릭 교회는 궁극적 권위에 있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베드로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1994년 판 가톨릭교회 교리 문답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전적 해석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시한장 10항). 즉 로마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할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85)고 주장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의로운 명령들이 영원히 지속되고 보존 되어야 하며(시 119:16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요 일 17:17), 성경 말씀을 기각하면 재앙을 더하며 생명책에서 제할 것이며(예 22:18-19),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갈 1:9),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 더하지 말 것이며(잠 30:5-6), 성경을 절대 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며(벡후 1:21),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으며(딤후 3:15),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전통을 따르며(마 15:3, 22:29, 골 2:8),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요 14:23-24)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는 성경해석이 성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가톨릭교회는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는 성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당과 성화상은 신앙을 일깨우고 기리기 위한 것이다. 성화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흠숭하여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머니와 천사와 성인들의 성화상을 소중히 하면서 그분들을 공경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1192)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상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고 계신다.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출 20:4)고 명하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신 16:22)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중이나 땅위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도 만들지 말고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신 4:15-18, 23, 레 19:4)고 명하신다. 더욱이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하리라(엡 5:5)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상숭배자와 같이 먹지도 말라(고전 5:11)고 명하고 있다.

3)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임무는 오직 교황과 주교들에게만 주어져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100)고 주장한다. 이러한 무례하고도 신학적으로 무지한 주장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한 전통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성도는 성경의 감동에 의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요 14:26, 16:13, 고전 2:12,13).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고백에 의한 전통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면 교황이 아닌 누구라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2천년 교회 역사의 증거이다.

4) 가톨릭교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삼계명의 제 2계명을 감하여 제 1계명에 예속시켰는가? 그들의 제 1계명의 성경을 가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 뜬 어떤 신상도 만들 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삼계명과 대조해 보자. 위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말 사악한 계교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하고 있다. 즉 10계명에 나타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를 빼 버렸다.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를 빼 버렸다. 그리고 대신 “그 모습을 본 뜬 마리아 상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본 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세상의 형상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가톨릭이 주장한 마리아 예수님에 관한 상은 만들어 섬겨도 된다는 주장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땅의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톨릭에서 강대상을 향해 절하고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빼쳐 나가는 교묘한 방법이다.

5) 가톨릭은 열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제 9계명은 “네 이웃의 소우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 10계명은 “네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 9계명은 마음의 정화와 정결을 주장하며 제 10계명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 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내적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외적 도덕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6) 가톨릭교회는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교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무 오류성에 참여하도록 원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탈선함이 없이 신앙을 지키라(교회헌장 12항; 계시한장 10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889)”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황은 직무상 무 오류성을 향유한다. 이러한 무 오류성은 하나님의 계시 유산의 범위와 등등하게 광범위하게 미친다(교회헌장 25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1편 #891)”라고 주장한다.

애석하게도 성경의 권위를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교황 밑에 붙들어 매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롬 3:23),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베드로는 죄를 고백하며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눅 5:8)라고 고백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요 4:24, 욥 11:7-9, 시 90:2, 약 1:17, 출 3:14, 시 147:5, 계 15:4).

다음호에 계속

사설

시대적 책임과 사명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의제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곧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주요관계자들은 ‘비핵화’의 의미를 놓고 김정일이 권력의 절대적 기반인 핵시설 폐기를 감행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제쳐 두고, 북한 측은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행 절차를 밝힌 바 없다.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마지막 문단에 서만 언급됐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북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했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 진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합의문에 언급된 비핵화는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들어가 있다. 주객이 전도된 합의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金正은

이 남한과 미국,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북한 경제 개발보다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라

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먼저 행동에 옮기려 하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지나치게 앞장 서 나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핵시설 폭파쇼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합의에도 거짓으로 일관해 왔던 북한의 만행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임에도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퍼주려 하고 있다. 또 한편 우리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배격하며 국가체제를 바꾸려고 전력을 다하는 세력도 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킬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마 10:16)고 하셨다.

“5월 셋째주일(20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제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교단 산하 전 교회가 총회주일 제정 결의를 지켜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한다.

특히 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교단 총회 주일로 정한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총회를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과 교단 산하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해 줄 것을 역설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앞둔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연하고 장중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 뽑고 정칙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총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전국교회는각기형편에 따라총회주일헌금에 적극 동참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결집된 힘으로우리에게 맡겨진 귀한사역들을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힘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하여 주었으며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교단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읍,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제67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로마 12:2)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7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8년 5월 21일(월) | 4. 사무총회 : 5월 21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21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21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

2018년 4월 5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양 인

5월 20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8년 5월 20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담임목사 청빙 공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2018년 4월 기준 만 40~55세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 졸업
(교육부 인가, 단, 성공적인 목회활동 하시는 분중 예외)
- 경력 :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기타 : 초교파 목사지원 가능

2. 1차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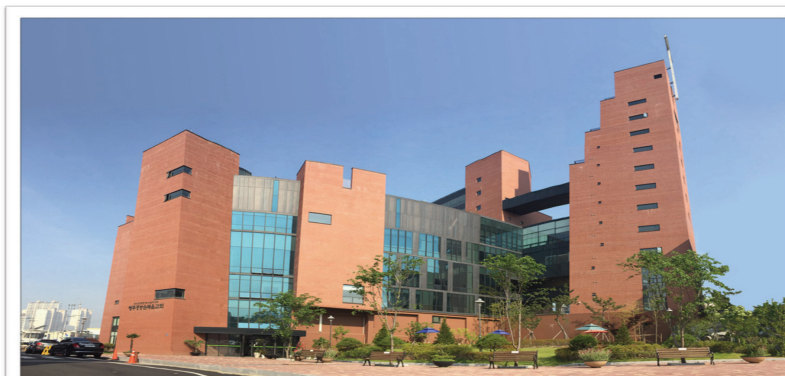
- 청빙지원서 각 1부, 사진부착(본인 및 사모)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소정양식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www.ccfgc.or.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목회계획서 : 목회동기, 목회철학, 비전, 바람직한 목회자 및 교회상
(A4용지 5매이내)
-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서 (성장배경 및 가족의 신앙이력)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교단소속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3. 교회소개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홈페이지 www.ccfgc.or.kr 참조하세요.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9일 ~ 5월 30일까지

(청빙서류접수는 메일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
(등기우편은 봉투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재종 기재
5월 30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5. 제출처 :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 e-mail : ccfgc9900@naver.com
- 문의 : 문의사항은 메일로만 가능하며 답변도 메일로만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 중앙순복음교회